

# 확 달라진 디자인...중후함에 뛰어난 승차감을 더하다

## 기아 'K8' 페이스리프트 모델 시승기

길어진 차체에 대형차 못지 않아...가속·감속 반복에도 뛰어난 연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시트에 스트레칭 기능 등 승차감 탁월



기아가 3년 만에 기아의 정체성 강조된 외관 디자인과 더욱 커진 차체, 최신 첨단기술 탑재한 K8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출시했다. 사진은 K8 페이스리프트 모델 내관(왼쪽)과 외관.



(기아 제공)

'K8'은 명실상부 기아의 대표적인 승용차량이다. 기아는 최근 K8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새로워진 K8은 지난달 국내 판매량 1·2위인 쏘렌토, 카니발에 이어 기아 차량 가운데 3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4724대)에 오르며 신차 효과를 톡톡히 봤다.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특징은 이전 모델과는 달리 기아의 정체성 강조된 외관 디자인과 더욱 커진 차체, 최신 첨단기술 탑재 등이 꼽힌다.

지난 25일 기아 광주 플래그십센터의 도움을 받아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했다. 이날 탑승한 차량은 1.6L 하이브리드 엔진에 최고급 트림인 시그니처에 드라이브 와이즈, 선루프, 헤드업디스플레이(HUD), 매리디안 사운드, 프리미엄, 스마트키넥트가 달린 약 5600만원짜리 '풀옵션' 모델로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パール이 적용됐다.

이날 시승 코스는 기아 광주 플래그십센터에서

출발해 담양 죽녹원을 왕복하는 약 56km 코스로, 시내 주행과 비교적 차량 통행이 적은 국도를 달리며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기에는 적당한 거리와 도로 상황을 갖췄다.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아보니, 전기모터와 1.6L 터보엔진이 가진 힘 덕에 경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K8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합해 최대 235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힘을 갖췄는데, 준대형차량인데다 차체가 전 모델에 비해 컸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줬다.

특히 전기모터를 갖춰서인지 반응속도도 빨라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거나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성으로 답답함을 느끼기 어려웠다. 준대형차량 답게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코너링을 하는 경우에도 단단하게 차체를 잡아주며 부드러운 주행질감을 선사했다.

K8을 고속으로 운전하면서 느낀 건 승차감 만큼

은 동급 차량 대비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었다.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트림과 옵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로 전방 노면 정보를 미리 인지해 노면에 적합한 서스펜션 제어로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했다.

요철과 경사가 가파른 방지턱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넘어갈 때도 탑승객에게 전달되는 울림과 충격은 적었다.

30여분 후 도착한 담양 죽녹원 주차장에 도착해 K8 내·외관을 살펴봤다.

K8의 외관은 누가 보더라도 기아의 세단임을 알 수 있었다. 기아의 최신 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해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진화한 듯 보였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반영해 어김없이 호랑이 어금니를 형성하는 수직적 조형미가 돋보이는 주간 주행등이 눈에 띄었다. 또 좌우 주간주행등을 잇는 센터 포지

셔닝 램프도 시각적으로 큰 차폭을 강조해 차체가 커보이는 느낌을 줬다.

직각적인 디자인이 많이 사용되면서 단단하면서도 강한 느낌을 줬는데, 여기에 측면부 길이가 증가하면서 더욱 커진 볼륨감이 돋보였다. K8은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이 각각 10mm, 25mm 늘어났다. 기아는 볼륨감 있는 후드 디자인을 적용해 날렵하고 역동적인 분위기의 새로운 비례감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후면부 디자인은 다소 아쉬웠다. 신규 범퍼 디자인으로 볼륨감을 키웠지만 하위 차량인 K5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줬다. 내부는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소재의 고급감과 조형미면에서는 발전했다.

1열 양쪽 도어를 잇는 '실버 라이닝 나이트 클라우드그레인 내장재'가 기하학적인 패턴의 스피커 그릴과 조화를 이루며 실내 고급감을 더했다.

콘솔에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듀얼)이 적

용됐는데, 충전인식이 빠르고 잘 작동했다. 이밖에 지문 인증 시스템과 현대차그룹 최초 이중 사출 인쇄 방식 컵홀더 커버, 열선 및 자외선(UV-C) 살균 기능이 포함된 양문형 콘솔암레스트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운전자 시트에 스트레칭 기능을 포함한 안마 기능을 장착해 장시간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감을 덜고 졸음도 쫓을 수 있는 기능이 돋보였다. 다시 차량을 운전해 도착지인 기아 광주 플래그십센터에 도착해 연비를 확인한 결과, 13.2km/L가 나왔다.

재원상 복합연비는 16.1km/L지만 시승을 위해 가·감속을 반복했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수한 연비다. 3년만에 페이스리프트된 K8의 가격은 2.5 가솔린 3736만원, 3.5 가솔린 4048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4372만원, 3.5 LPG 3782만원부터 시작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금호타이어, 광주 등 3개 공장 'ISO 50001' 인증

금호타이어는 28일 "광주, 곡성, 평택 등 국내 3개 공장에 대해 국제 에너지경영시스템 표준 규격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 인증은 에너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등 에너지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는지를 평가해 부여된다. 첫 인증 취득 뒤에는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심사를 매년 진행한다.

금호타이어는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비 투자 및 관리시스템 개선,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금호타이어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실천 의지를 담아 지난해 환경경영 정책을 제정했고, 다양



한 채널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에 대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벤츠 코리아, 장기 고객에 무상점검 캠페인

11월 9일까지 계절성 부품 할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오는 11월 9일까지 장기간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2024 클래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클래식 캠페인은 2017년 11월 9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75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캠페인 기간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 대상 무상점검과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액, 브레이크 패드 센서 등 브레이크 관련 부품, 미션오일, 공기 정화 필터, 에어 필

터, 오일 필터, 미션오일 필터, 스타터 배터리를, 와이퍼 블레이드 등 계절성 부품을 25%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순정 부품 및 액세서리 제품도 20% 할인한다.

벤츠는 캠페인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유상 수리를 받은 고객에게는 자동 응모를 통해 경품을, 서비스센터 후기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나눠줄 예정이다.

클래식 캠페인은 가까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예약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애프터 블로우' 적용...2025년형 쏘나타 디 엣지 출시

현대차, 최상위 트림 가격 인하

현대차는 28일 "대표 중형 세단 쏘나타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5 쏘나타 디 엣지<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형 쏘나타 디 엣지는 고객 목소리를 반영해 일부 기능을 추가하고, 트림별 가격을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존 쏘나타의 클러스터 좌측에 있던 실내 지문 인증 기능을 동승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센터 콘솔 상단으로 위치를 변경했다.

이어 매뉴얼 에어콘에도 습기를 건조하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을 적용하고, 열선과 통풍 기능이 고단계에서 저단계로 작동하도록 로직을 바꿨다.

쏘나타의 판매가격은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0 모델 ▲프리미엄 2831만원 ▲익스클루시브 3201만원 ▲인스퍼레이션 3536만원이며, 1.6 터보 모델은 ▲프리미엄 2898만원 ▲익스클루시브 3268만원 ▲인스퍼레이션 3603만원이다.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세제혜택 반영 기준으로 ▲프리미엄 3240만원 ▲익스클루시브 3595



만원 ▲인스퍼레이션 3931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장의 고객 목소리를 수렴해 상품성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다문화 가정 인식 개선...기아, 하모니움 페스티벌 개최

기아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서 '하모니움 페스티벌'을 열었다. 〈사진〉 하모니움 페스티벌은 다문화 미래 세대의 성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해 기아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인 '하모니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토크 콘서트와 야외 음악회를 비롯해 플라마켓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전시와 부스가 마련돼 다문화 가족은 물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했다.

야외무대인 하모니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는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를 주제로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꾸린 방송인 알베르트 몬디와 방송인 강남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야외 음악회는 '하모니움: 서로 다른 소리가 만드는 하나의 큰 울림'을 주제로 가수 존 박과 4인조 남성그룹 스위트소로우가 행사 취지에 맞는 음악을 선사했다.

기아는 정부와 학계, 다문화 지원 기관과 향후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모니움은 조화를 뜻하는 '하모니(Harmony)'와 새싹이 돋는다는 의미를 가진 '움트다'의 합성어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래세대가 조화롭게 하나 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이뤄간다는 뜻이 담겼다.

기아는 하모니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주제로 한 영상 캠페인도 제작

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하모니움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